

한국불교 고문헌 역주서 대거 발간

동국대 불교학술원, 상반기 역주서적 6권 발행

한국불교의 중요한 전적이 대거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최근 <법계도기총수록>을 비롯한 총 6권의 한국 불교전서 역주서를 발간했다. 불교학술원에서는 12월 발간되는 <송운대사분총서난록>(松雲大師奮忠 難錄) 등 4권을 포함하면 총 10권에 달한다.

ABC사업은 한국불교 고문헌에 대한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서적은 <무량수경연의술문찬>(경흥 / 한명숙 옮김), <법계도기총수록>(저자 미상 / 해주 스님 옮김), <사경지협기>(성총 / 성재현 옮김), <사명당대사집>(유정 / 이상현 옮김), <의룡집>(저자 미상 / 김석근 옮김) <응운공여대사유망록>(공여 / 이대형 옮김) 등이다.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은 정토부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로 유식학적 관점에서 경전을 해석한 책이다. 원효(元曉)·의적(義寂) 등과 같은 당대 신라의 정토 계통 저술을 남긴 학자들과 '정성이승(定性二乘)의 왕생'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주목받는다. 정토 신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신라시대 고승 경흥(景興) 스님이 찬술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주석서 중 가장 분량이 많다.

<법계도기총수록>은 한국화엄의 주석전

통을 대표하는 저술로 한국불교의 사자상승(師資相承) 전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주석서다. 이 책은 해동화엄의 조조로 숭앙되는 의상(625~702) 스님의 대표저술인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에 대한 신라시대의 주석서인 <대기>(大記), <법음기>(法音記), <진수기>(眞秀記) 등과 이와 관련된 인공문헌들을 <일승법계도>의 원문과 함께 집성한 것이다.

<일승법계도>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인 이 책은 의상 스님의 화엄세계와 의상계 화엄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국화엄의 주석전통을 대표하는 저술로서의 가치는 물론, 한국불교의 사자상승 전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점에서 도 크게 주목할 만한 사료다.

<사명당대사집>은 임진왜란에서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역동적 삶을 보여주는 시문집으로 사명대사 탄신 470주년에 나온 <사명당대사집>의 역주교감본이다.

이 책은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대사가 입적한 뒤에 그가 남긴 여러 종류의 작품들을 제자들이 수집하여 7권 1책으로 편집 간행한 것이다. 수록된 시문의 형식은 사(辭), 고시(古詩), 율시(律詩)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책에 실린 시



<법계도기총수록> 등 한국불교전서 6권

신라부터 조선까지 다양한 문헌 일반인이 볼 수 있게 쉽게 역주 ABC사업 일환, 아카이브 구축도

문을 통해 대사의 승려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전란에 임하는 장수로서의 품모, 외교관으로서 특수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역동적인 삶의 여정(旅程)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의룡집>은 새로 발굴된 19세기 범어사의 룡 계훈(義龍 體訓) 스님의 문집으로 실린 시 138편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 사물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탐구하는 서정적 시인으로서의 일관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범어사를 중심으로 동래, 금정산성 등 여러 공간이 시의 소재로 쓰이고, 동래부사 등 지역인사들과 교류한 시가 다수 있어 대사의 문학이 지역적 성격을 지닌 요인이 되

기도 한다. 기문은 총 28편이 전하는데, 이 가운데 <범어사폐막조건기>(梵魚寺弊?條件記)와 <범어사승군등장>(梵魚寺僧軍等狀) 두 편의 글은 19세기 후반 범어사가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현실적 담론으로 주목된다.

<사경지협기>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관음경> 등 네 가지 경전을 사경하고 수지독송하며 간행 유포한 이들의 영험담을 엮은 책이다.

백암 성총(栢庵 性聰) 스님이 청의 주극부(周克復)가 편찬한 <관세음지협기>(觀世音持驗記), <역조법화지협기>(歷朝法華持驗記) 등 여러 책에서 내용을 발췌해 1686년 간행했다.

<응운공여대사유망록>(應雲空如大師遺忘錄)은 도교적 성격이 강한 삼교일치론과 <화엄경>을 중시하는 조선 후기 불교계의 경향을 보여주는 산문 위주의 문집으로 당시 폭넓은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용암집>(龍巖集)은 공여대사의 스승인 용암 혜언(龍巖慧彦)을 임전(立傳)한 것으로 문집이 전하지 않는 용암에 대해 잘 소개한 글로서 특히 가치가 있다.

불교학술원 측은 "이들 문헌은 신라와 조선에 걸쳐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어, 향후 불교학을 연찬하는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필독할 만한 양서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도 교육·제도·조직 '삼박자' 활성화 관건

포교부장 송묵 스님, 김응철 교수 신도 정책 제언

조계종 신도 정책을 점검하다

- ① 시행 5년 신도품계와 조직화
- ② 신도재교육 '불교대학'의 명암
- ③ 신도정책 변화 성공하려면



송묵 스님 김응철 교수

송묵 스님 "전국적인 홍보 계획" 김응철 "현실에 맞는 도입부터"

포교원은 1995년 이후 5년간 200만명의 신도등록을 목표로 신도등록사업을 추진해오다 교육화된 신도 양성화 조직 체계화를 위해 2009년 신도품계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3년 경과한 현재, 신도품계제도의 인식부족으로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체계와 연계한 품계품수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도품계제도가 불교계에 안착화 될 때 진성 신도를 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불자교육과 신도조직, 신도품계제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움직여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011년 7월 시행령 제정 후 신도품계제도 활성화를 노력 중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홍보대사를 위촉해 전국 홍보를 하고 영상·기획광고 등을 통해 품계제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5년에는 품계를 기반하는 종단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입법반영을 위한 종합적 진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품계제도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찰과 신도의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품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도회 구성을 품계 품수자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품계제도는 모든 신도에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사찰에서 열심히 수행활동을 하는 신도들에게 주지 스님이 지위를 부여하듯, 포교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등장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묵 스님은 "모든 신도가 무조건 선혜품계 품수까지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신도 개인이 좀 더 발전된 수행과 수행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해당 교육을 통해 품계를 품수하고 조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교원은 종단의 골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중앙신도회-교구신도회-사찰신도회'의 구성원은 분명한 종단 정체성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신했다.

송묵 스님은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활동에 대한 중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세 조직의 구성원은 최소한의 요건은 신도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발심 품계만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입성"이라고 강조했다.

신도품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불교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포교원은 지적 여건, 커리큘럼의 부재, 강사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불교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송묵 스님은 "각급 신도회 구성원은 재적사찰을 근본으로 신행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포교사단을 비롯한 각종 자적직 구성원들도 단체소속의 역량활동과 재적사찰의 신도회 소속 신행활동이 병행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응철 교수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불교대학 및 사찰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기본교육은 재적사찰에서 주지 스님이 담당하고 불교대학은 거점사찰이 담당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동해 삼화사의 경우 '동해불교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삼화사 신도뿐 아니라 동해·삼척 지역의 불자들도 교육시키고 있다"며 "동해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신도들은 재적사찰을 바꾸는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스님들은 신도들이 동해불교대학에 다니는 것을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교원은 불교대학의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편성현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송묵 스님은 "향후 학사운영 체계를 보다 강화해 지역 및 소속사찰의 경계를 허물고 강사 인력과 검증된 커리큘럼이 공유돼 보다 쉽게 많은 불자들이 교육과정을 거쳐 역량 있는 신도로 거듭 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민족 상징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문화재제자리찾기, 11월 11일 10만 서명운동 발대식

승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국보70호)을 국보 1호로 지정해달라는 1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해운)와 우리문화지킴이는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광장에서 '훈민정음 국보1호 지정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승례문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 총독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이날 해운 스님은 "승례문의 국보1호 지정 배

경에는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에 진입한 상징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두차례나 해지를 추진했다. 최근에는 화재 이후 보수 비리마저 불거진 승례문을 지정해제하고, 훈민정음을 1호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1월 1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문화재청에 이를 접수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발대식 이후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 회원들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으로 자리를 옮겨 국보1호 지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중일 불교 '한반도·세계평화' 기원 행진

종단협, 18~19일 한중일대화... DMZ서 기원법회 열어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DMZ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평화기원법회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8~19일까지 파주 도라산전망대와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제 17차 한중일한국대회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주요 종단 총무원장 스님 등 한국대표단 170명과 중국대표단(단장 쉘칭 스님) 119명, 일본대표단(단장 다케카쿠 스님) 50여 명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11월 18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3국 교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19일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 각국의 역사 속에서 평화사상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학술강연회, DMZ 평화행진과 평화기원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19일 오후 2시 임진각에서 '평화행진과 평화기원법회'를 열고 통일대교까지 1km 구간을 함께 걸을 예정이다.

평화행진에 이어 오후 3시에는 비무장지대와 개성공단이 바라보이는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법회'가 열리며 법회에서는 3국 국가별 예불의식과 평화기원 메시지 발표,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된다.

공동선언문에서는 한중일 3국 불교계가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3국 불교도들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단협 사무처장 각우 스님은 "이번 한국대회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평화기원법회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 기사 차주 상보)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제품 상세 보기 :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구입 문의 : (031) 470-3180·3181
정가 : 13,000원

그림: 박희진